

# “새만금 예산 삭감, 尹 보복성 편성”

### 민주 “새만금 사업,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 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구의 김성주·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복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8억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7%)이 삭감돼 정부안에 1479억원만 반영됐다. 그 원인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에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역 예산에 있어서 편향성과 편중성, 당파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나왔다”며 “특히 전북 새만금 관련 예산은 전체 정부 부처 요구 대비 20% 반영이라고 하는 단 한 차례도 없는 놀라운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지우기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인지는 최근 3년간 새만금 주요 SOC 사업들의 예산 반영 현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액과 최종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2021년 103%, 2022년 139%, 2023년 101%로 최종 정부 예산안에 더 많이 증액된 채로 반영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22%만 반영됐다는 취지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기획재정부가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걸 재량권의 일탈을 넘어 예산보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지난 34년 동안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정부에서 국정사업으로써 추진돼 왔던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새만금의 역사를 부정하며, 전북 죽이기, 새만금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새만금 SOC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당은 다가오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과 새만금을 희생양 삼은 예산 삭감이자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 이념전쟁을 선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잼버리 파행 이후에 전북 새만금을 카르텔처럼 규정, 적대시하고 예산을 깎으며 예산 보복하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공산 세력, 카르텔 세력 낙인찍는 방식으로 탄압하고 보복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 “전북에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더니 새만금 예산 난도질”

###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 “새만금 사업 노태우 정부 국책 사업... 공황은尹 대선 공약 새만금 SOC 정치공세 중단·예산 복구하라”



염영선 전북도의회 대변인이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생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내년 정부에 산안에 새만금 SOC 주요사업비가 무더기 삭감될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예산 복구 주장과 500만 전북인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은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도의회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데 대해 크게 분노하며 180만 전북도민 등 500만 전북인과 함께 새만금 사회적 집자본(SOC)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고 했다.

도의회는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다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을 당했다”며 “지난 29일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예산은 당초 부처 반영액 6628억원의 78%나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으며 특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명히 밝힌다 새만금 사

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국책 사업으로 역대 정부가 34년 동안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초당적 사업으로 특히 새만금 공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수차례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염영선 대변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전북인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잼버리진실 규명대응단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는 물론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오늘 ‘홍범도 VS 백선엽’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 일제강점기 홍범도 장군 항일투쟁·백선엽 행적 비교

### 독립군·광복군 뿌리로 하는 우리 국군의 정체성 규명



육군사관학교가 독립 전쟁 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희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흉상을 철거하고 대신 일제 만주

군 출신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홍범도 VS 백선엽’ 논란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백혜련·김종민·강훈식·김성주(사진)·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윤영덕·이용주·조응천·최종윤·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유기홍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일제강점기 홍범도 장군의 항일투쟁과 백선엽 장군의 행적을 비교하고, 독립군과 광복군을 뿌리로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규명함으로써 최근 벌어지고 있는 퇴행적 이념 전쟁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평생 한국과국어대 학교 명예교수와 최태욱 한반도통일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 홍범도 장군의 항일투쟁과 백선엽 장군의 행적을 비교 발표한다.

토론회는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우용 前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심철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 국내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국회 정부위원회)은 “독립영웅 흉상 철거를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극대타를 규탄하고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임을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회의원 정운천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30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새만금 예산 삭감... 민주 “용납 않을 것”

### 한병도 민주 도당위원장 오늘부터 당 차원 대응 예고 “기재부 직권남용 가능성 커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

내년 새만금 SOC 관련 정부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무려 78% 가량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전북도는 물론 지역 정관계, 체육계 등에서 삭감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보고자 전북도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수준 이하의 보복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다수당으로서의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핵심 측근 의원들의 예산이 과도하게 무엇이 반영이 됐는지 저하들도 전부 실태 조사할 것이고 여당의 선심성 SOC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 쳐 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정책위 차원에서 그걸 다 조사를 할 거고 상임위가 끝나면 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라면서 “증액을 동의해주시지 않는다면 똑같이 정부 주 사업 및 여당 측에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나 이렇게 돈으로 보복하는 것은 수준 이하이다”라며 “이무튼 다수당의 힘으로 저지할 것이고 이번 예산은 절대 통과 없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가 목포에서 입장을 낸 것처럼 당 차원에서 이걸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규정을 했으며 원내대표 등과 전략을 같이 짜도록 하겠다”면서 “전북 의원들도 당장 내일 전체 모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78%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 기재부의 직권남용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 “잼버리 파행 책임에 새만금 예산 삭감?... 타당하지 않아”

### 천하람 국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 위원장은 30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북 새만금 사회적집자본(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전북 지역의 SOC를 연관시켜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 인터뷰에서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전북도민들께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지역에 특히 심지어는 새만금과 관련한 직접적인 우리 지원

들도 저희가 지난번에 대선 때 전북 지역에 많이 약속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물론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잘못된 일이다. 홍 장군이 영웅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보수 진영에도 이미 역사적인 합의가 있다”고 했다. /뉴스

## 권요안 도의원, 완주 마을교육연대 발대식 참석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완주미래융복합센터에서 열린 마을교육연대 발대식과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권요안 도의원, 오현숙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성중기 군의원, 이주갑 군의원과 주민 60여명이 참석해 완주군 학생 동아리 공

연과 마을교육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마을교육연대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의 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공동체이다.

권요안 의원은 “마을교육연대 발대식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뜻깊은 자리다”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교육활동 범위를 넓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30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전북 발전 다짐”... 조배숙 국힘 도당위원장 취임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행사를 갖고 전북 발전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30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5층 대회의실에서 조 위원장 취임식과 전북도당 주요당직자와 핵심당원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중앙당 김병민 최고위원과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참석했으며, 외빈으로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조병철 평안남도지사, 김소라 한국자

유총연맹 전북도지부회장, 임국선 전 육군 중장, 유병남 원광대학교 대외협력홍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라북도에서의 민주당 일당독주의 병폐를 지적하며 “경제와 균형을 위해 그리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북의 발전과 전북에서의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도당 관계자들은 당원 교육을 통해 전북 발전과 전북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뉴스